

---

## 중국어성경에서 就의 한국어 번역 양상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황 지 연\*1)

###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텍스트 접속구조와 접속표지
3. 접속표지 就의 한국어 번역 양상
4. 결론

### 1. 들어가는 말

중국어 성경의 한국어 번역은 중국 만주 봉천에서 선교하던 존 로스(1841-1915) 목사로 한국어로의 번역이 시작되었다. 동료인 매킨타이어 목사와 이용찬 김진기 백홍준 등 의주출신의 청년들과 등과 함께 1882년에 평안도 사투리가 강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출간하였다. 이때 한글 번역은 조선인 번역자들이 중국어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면 다시 그것을 헬라어 원문과 대조하여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sup>1)</sup>

이 시기의 한국어 성경은 순 한글로 되어 있으나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고 구두점도 없었다. 1887년에 신약 전체가 번역 출판되었고 1911년에 신구약이 모두 번역되어 신구약 합본이 출간되었다. 이 성경은 여러 번 출판을 거듭하면서 개역을 시도하여 1936년에 ‘성경개역’이 나왔고, 1952년에는 여기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채용하였다.<sup>2)</sup> 1964년 국한문혼용 ‘관주성경’에서 띄어쓰기가 시작되었고 한문을 읽을 수 있는 독자위해 한자를 사용하였다. 이후 점차 장에 소제목까지 붙이고 맞춤법도 종결어미 ‘다’가 사용되고 있다. 점차로 과감하게 현대어 구어체를 사용하여 가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개역판이 나왔다.

언어와 진리가 혼연일체가 구현된 텍스트는 신의 말씀이 그 영의 감동에 의하여 쓰여진 성경 밖에는 없다. 그래서 성서 번역이야말로 말로 원작의 언어와 계시되는 것이 완벽한 일치 이루어므로 번역에서도 이것이 고스란히 담기도록 해야 하므로 성경의 번역은 어려운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성경의 원어는 구약이 히브리어 신약이 헬라어로 되어있는데 한국어 성경의 경우 중국어 성경으로부터 번역되었다. 이에 중국어와 한국어 성경을 대조하고자 한다. 현대어 구어체로 되어있는 한국어 성경은 중국어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번역하였을까. 이를 위해 중국어 성경에서 접속표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就가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911년 중국어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신구약 합본이 출간된 이래 지금까지 성경은 여

---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중과 부교수

1) 정정호(2007), <개화기 개신교의 번역사역과 한국 어문의 근대화>, 『한국번역학회』 8권 2호

2) 최태영(1988), <성경번역이 어문생활에 미치는 영향>, 『종교연구』 4권 1호

러 번 출판을 거듭하면서 개역되었다. 본 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성경은 표준새번역 성경이다. 이 성경이 2001년에 출간된 비교적 최근 성경이고, 또 표준새번역 성경은 번역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두드러지는 원칙을 보면 쉬운 현대어로 번역하고, 원어의 뜻을 분명히 파악한 다음에 한국어 어법에 맞게 표현하여 번역투를 없애고 우리말 관용구를 활용하여 원문이 뜻하는 바를 우리말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번역한다고 제시하고 있다.<sup>3)</sup>

원래 就는 중국어에서 부사 중 하나이다. 의미를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시간의 빠름, 수량이 적음을 표시한다. 둘째, 강조를 표시하여 원래부터 그러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셋째, 조건 가정 인과 목적 등 논리관계 안에서 충족적인 필연성을 나타낸다. 바로 이 세 번째 뜻이 중국어 성경에서 여러 가지 접속표지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어의 경우 접속표지는 접속사외에 부사 명사 수사 형용사 동사 등으로 나타난다. 본 문의 목적은 중국어 성경에서 접속표지로서 활용되고 있는 就가 현대어로 된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되었을 때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물론 중국어 뿐 아니라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끼리의 대조도 필요하겠으나 중국어 성경 번역 고찰의 첫걸음으로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和合本 중국어성경과 한국어는 표준새번역 성경을 대상으로 삼겠다. 본 문의 데이터는 和合本 중국어성경과 표준새번역 성경(2005) 두 곳에서 추출된 것이다. 중국어 성경도 최근 현대어로 재구성되기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보편화되어 있는 성경은 합화본 성경이다. 연구 방법은 중국어 성경과 한국어 표준새번역 성경 중 16장에 달하는 마가복음 부분을 대조하고자 한다.

## 2. 텍스트 결속 구조와 접속 표지

텍스트란 보통 의미적 통일성과 연관성을 지닌 언어사용자들의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언어 단위를 일컫는다. 학자들마다 텍스트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통사적인 관계에 초점을 두는 문장들의 연속체로 보는 것과 또 다른 관점은 의미 지향적인 문장들의 연속체로 보는 것이다.(Brinker,1992)<sup>4)</sup> 텍스트언어학에서 중요한 개념은 ‘텍스트성’이다. 텍스트성이란 텍스트가 갖춰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Beaugrande & Dressler(1981)에 따르면 결속구조(cohesion), 응집성(coherence), 의도성, 용인성, 정보성, 상황성, 상호 텍스트성을 텍스트성의 요소로 꼽았다. 이들은 ‘cohesion’을 표층 텍스트 구성요소의 문법적 관계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고, 표층텍스트 기저의 의미적 연관성을 이루는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coherence’라고 하였다.<sup>5)</sup>

이은희(1993)은 결속표지의 언어적 명시화가 텍스트의 성립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cohesion’을 단순히 통사적 장치로만 볼 수 없다고 하였다.<sup>6)</sup> 이는 표층적 결속인 통사적 측면과 심층적 결속인 의미적 측면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된 실체이므로 텍스트의 결속현상은 이 두 가지 측면 모두 보아야 한다는 뜻이라 할 수 있다. 안인경(2002) 등은 텍스트 언어학을 통번역 연구에 적용하기도 하였다.<sup>7)</sup>

Halliday & Hansaen(1976)의 경우 결속구조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지시, 대체, 생략, 접속,

3) 원영희(2000), <한글성경 번역상의 변화연구>, 『한국번역학회』 1권 2호

4) Brinker(1992)/이성만 역(2004),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역락 2

5) Beaugrande & Dressler(1981)/김태욱 이현호 역(1991), 『담화텍스트 언어학 입문』, 양영각 10-14

6) 이은희(1993), <접속관계의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60-69

7) 안인경(2002), <텍스트의 관점에서 본 독한 동시통역에서의 관계문 문제>, 『텍스트언어학』 12집

어휘적 결속의 5가지를 들었다. 이 가운데 접속 관계를 첨가, 반대, 인과, 시간으로 나누었다.<sup>8)</sup> Beaugrande & Dressler(1981)는 등위접속, 이접접속, 역접접속, 종속접속으로 나누었다.<sup>9)</sup> 중국에서 텍스트 언어학을 처음 소개하고 텍스트 언어학 연구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廖秋仲(1986)이다. 그는 접속을 시간관계의 접속표지와 논리관계의 접속표지로 나누었다. 시간관계 접속표지 안에 서열시간과 선후시간을 두었고, 논리관계 접속표지 안에 순접과 역접 및 전환으로 구분하였다.<sup>10)</sup>

본 문은 텍스트 결속구조를 구축하는 이 5가지 요소 중 하나인 '접속'이 중한 성경번역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접속관계는 결속구조를 표시하는 데 있어 상황적 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텍스트와 관련된 요소이다. 문장의 층위를 넘어선 텍스트 차원이란 할 수 있다. 접속관계에서 통사적 측면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를 고찰한다면, 의미적 측면은 연결된 의미를 주로 고찰하게 된다. 의미적 측면은 언어적으로 명시화 될 수도 있고 명시화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본 문은 명시화된 접속만을 대상으로 하겠다.

나은미(2006)는 접속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범주로 접속어와 연결어미를 들고 있다. 한국어에서 연결어미는 독립된 품사가 아니고, 접속사를 부사의 한 부분으로 다루는 등 접속어 품사 분류에서 이견이 있으므로 이 두 범주를 아울러 접속표지라 불렀다.<sup>11)</sup> 본 문도 이 견해를 따라 접속어와 연결어미를 합쳐 접속표지로 부르겠다.

중국어 성경에서 就는 다양한 논리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의미의 한국어 접속표지로 번역되었는데 한 예로 중국어 성경의 10장 21절에 나와 있는 [부자 젊은이]의 텍스트를 보자.

耶稣看著他，**就**爱他，对他说：你还缺少一件：去变卖你所有的，分给穷人，**就**必有财宝在天上；你还要来跟从。他听见这话，脸上**就**变了色，忧忧愁愁的走了，因为他的产业很多。  
 예수께서 그를 눈 여겨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여기서 보면 하나의 텍스트 안에 就가 3개가 들어있는데 모두 다른 접속표지로 사용되었다. 첫 번째 나오는 就는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로 순접 의미로 번역되었고, 두 번째 就는 '주어라. 그리하면 ~할 것이다.'는 가정의 의미로, 세 번째 就는 '~ 때문에'로 인과의 의미로 번역되었다. 이와 같이 就가 한국어로 번역될 때 다양한 접속표지로 번역되고 있다.

접속표지를 통해 우리는 논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언어의 층위를 문장단위로만 한정하지 말고 텍스트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보면서 두 가지를 유기적으로 연관시켜야 할 것이다. 본 문에서는 廖秋仲(1986)의 분류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된 접속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중국어 성경의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就가 한국어 번역되는 과정에 나타난 접속표지의 종류와 접속관계 양상을 정리하고자 한다. 본 문에서는 접속표지의 빈도수를 세는 게 아니라 접속표지의 종류와 양상을 보고자 하므로 중복되어 나오는 접속표지들의 경우 하나의 범주로 넣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연동숙(2005), <한국어와 중국어의 텍스트 대조 결속 연구>, 한국외대박사논문, 29에서 재인용

9) Beaugrande & Dressler(1981)/김태욱 이현호 역(1991), 『담화텍스트 언어학 입문』, 양영각 71

10) 廖秋仲(1986), 『廖秋仲文集』, 北京语言文学院出版社, 86-87

11) 나은미(2006), <텍스트의 내용과 접속표지의 상관관계 연구>, 『우리어문연구』 27집

### 3. 접속표지 就의 한국어 번역 양상

#### 3.1. 시간관계

廖秋仲은 시간관계 접속표지를 시간의 서열과 시간의 선후로 나누었다. 마가복음을 고찰하는 가운데 뒤에, 다음에, 그러고는 등과 같이 시간의 선후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표지는 찾았으나 시간의 서열을 나타내는 접속표지는 찾을 수 없었다.

##### 3.1.1. 뒤에, 다음에

(1) [군인들이 예수를 조롱하다] 15:16-20

他们给他穿上紫袍，又用荆棘编作冠冕给他戴上，就庆贺他说：恭喜，犹太人的王阿！又拿一根苇子打他的头，吐唾沫在他脸上，屈膝拜他。戏弄完了，就给他脱了紫袍，仍穿上他自己的衣服，带他出去，要钉十字架。

(1)'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就는 '~에'로 번역되었다. 통사적 차원에서 '~에'는 조사로서 시간이나 장소 명사와 결합하여 선행하는 상황은 후행 상황에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의미적 차원에서 볼 때 (1)'의 텍스트는 군인들이 예수께 먼저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운 다음 조롱하는 내용으로 시간의 선후로 되어 있다. 이어서 예수를 희롱이 끝나자 다시 자색 옷을 벗기는 동작이 이어진다. '뒤에' '다음에'에서 '~에'가 접속표지로 작용하여 시간 순서의 의미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3.1.1.2. 그러고는

(2)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다] 5:9-10

耶稣问他说：你名叫甚麽？回答说：我名叫群，因为我们多的缘故；就再三的求耶稣，不要叫他们离开那地方。

(2)'예수께서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니, 그는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하였다. 그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접속표지 '~고는'은 '~고'와 결합된 선행동작을 한 다음에 후행 동작을 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다. 의미적 차원에서 (2)'의 텍스트에서 선행동작으로 귀신들이 예수께 대답을 하고 후행동작으로 간청하는 구성으로 되어있다. '그러고는'은 귀신이 '예수께 대답을 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 '간청하였다'는 두 개 동작을 이어주는 해석의 단초를 제공하는 접속표지의 역할하고 있다.

#### 3.2. 순접관계

순접관계를 나타내는 접속표시의 종류로 나열, 부가, 인과, 추측, 결과, 가정 등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나열의 접속표지는 '~고, ~고서, ~(으)며, ~(으)면서, 그러면서' 등이 있다.

##### 3.2.1. 나열

### 3.2.1.1. ~고

(3) [예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다] 6:2-3

到了安息日，他在会堂里教训人。众人听见，就甚希奇，说：这人从那里有这些事呢？...这不是那木匠麼？不是马利亚的儿子雅各、约西、犹太、西门的长兄麼？他妹妹们不也是在我们这里麼？他们就弃他。

(3)'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 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나열을 나타내는 접속표지 '~고'는 연결어미이다. 나열은 사실의 단순한 동시적 나열과 시간적 순서를 나타내는 나열로 나눌 수 있다. 사실을 나열하는 경우 선행어와 후행어를 바꾸어도 의미가 변하지 않지만 시간을 나열할 때는 선행어와 후행어를 바꾸지 못한다. 마가복음에 나온 就의 한국어 번역에서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 접속표지는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는 동작들이 연결되어 있는 나열인 '~고'이다. (3)'에서 사람들이 '들었다' 그리고 난 다음 '놀랐다'는 시간 흐름의 논지를 드러내고 있다. 마가복음에서 '주고, 보고, 듣고, 아시고, 주시고, 알아보고, 알아채시고, 느끼시고, 붙드시고, 생각하고' 등 나열의 접속표지 '~고'가 무척 많이 나온다.

### 3.2.1.2. ~고서

(4) [아이로의 딸과 혈루증 걸린 여자] 5:25-27

有一个女人，患了十二年的血漏，在好些医生手里受了许多苦，又花尽了他所有的，一点也不见好，病势反倒更重了。他听见耶稣的事，就从後头来，杂在众人中间，摸耶稣的衣裳，意思说：我只摸他的衣裳，就必痊愈。

(4)'그런데 열두 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아 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었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를 터인데!" 하고 생각 했던 것이다.

就는 한국어에서 '~고서'라는 접속표지로 번역되었다. (4)'의 텍스트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 돈 여인이 재산을 다 써가며 온갖 치료를 받았으나 병이 도리어 악화되는 상황에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나서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왔다'는 내용이다. 통사적으로 '~고서'는 두 개 이상의 동작이 시간적인 순서로 일어나는 시간 나열에 속하는 연결어미이다. '~고서'를 사용해 시간의 순서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3.2.1.3. ~(으)며'

(5)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1:24-26

拿撒勒人耶稣，我们与你有甚麽相干？你来灭我们麼？我知道你是谁，乃是神的圣者。耶稣责备他说：不要作声！从这人身上出来罢。污鬼叫那人抽了一阵疯，大声喊叫，就出来了。

(5)'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셨다.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접속표지 '~(으)며'는 두 개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의 나열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다. '소리 질렀다'와 '떠났다'는 같이 시간대에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하는 동시적인 나열을 나타

낸다. (5)'의 텍스트에서 就가 한국어로 번역될 때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떠나가는 두 개의 동작을 동시에 나열하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접속표지로서 '~(으)며'를 사용하고 있다.

#### 3.2.1.4. ~(으)면서

(6)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다] 3:4-5

又问众人说：在安息日行善行恶，救命害命，那样是可以的呢？他们都不作声。耶稣怒目周围看他们，忧愁他们的心刚硬，就对那人说：伸出手来！他把手一伸，手就复了原。

(6)'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하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접속표지 '~(으)면서'는 선행절의 동작이나 상태와 후행절의 동작이나 상태가 동시에 일어남을 뜻하는 연결어미이다. 의미상으로 (6)'의 텍스트에서 사람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고발하려한다. 이에 예수는 노하여 그들을 둘러보며 굳어진 마음을 탄식하며 말씀하는 내용이다. 就가 '탄식하시면서'로 번역되어 '탄식하다'와 '말씀하시다'로 이어지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3.2.1.5. 그러면서

(7) [예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다] 6:2-3

到了安息日，他在会堂里教训人。众人听见，就甚希奇，说：这人从那里有这些事呢？这不是那木匠麼？不是马利亚的儿子雅各、约西、犹太、西门的长兄麼？他们就弃他。

(7)'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러면서'는 앞의 문장의 동작을 하거나 상태가 지속되면서 동시에 뒤 문장의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남을 나타내는 접속어이다. 텍스트 (7)'의 의미를 보면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침과 기적을 베풀었다. 많은 사람들은 놀라면서 어떻게 이런 능력을 얻게 되었을까 질문을 한다. 이와 동시에 달갑지 않게도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나열의 논지를 드러내기 위해 '그러면서'라는 접속표지가 사용되었다.

### 3.2.2. 부가

부가로 번역된 접속표지의 종류는 '~그리고'가 있다.

#### 3.2.2.1. 그리고

(8) [눈먼 바디매오가 고침을 받다] 10:51-52

耶稣说：要我为你作甚麼？瞎子说：拉波尼，我要能看见。耶稣说：你去罢！你的信救了你。瞎子立刻看见了，就在路上跟随耶稣。

(8)'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就는 한국어에서 뒤 문장 첫머리에 놓여 '그리고'로 번역되었다. 통사적으로 '그리고'는 접속어이다. 두 개의 문장이 있을 때 주로 뒤 문장의 첫머리에 놓여서 앞 문장과 연결한다. 의미적으로 (8)'텍스트에서 '눈먼 사람은 다시 보게 되었다'와 '그는 예수를 따라 나섰다'라

는 두 개의 문장을 ‘그리고’라는 접속표지를 사용해 하나로 연결하여 의미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3.2.3. 인과

인과로 번역된 접속표지의 종류는 ‘~(으)므로, ~어/아/여서, 때문에, 그래서, 그리하여’ 등이 있다.

#### 3.2.3.1. ~(으)므로

(9)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12:12

他们看出这比喻是指著他们说的，就想要捉拿他，只是惧怕百姓，於是离开他走了。

(9)‘그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렸으므로**,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를 무서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통사적 측면에서 ‘~(으)므로’는 연결어미로서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나 근거가 됨을 나타낸다. (9)‘의 텍스트의 의미적 측면을 보면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그들을 겨냥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알아서 그러한 이유로 예수를 잡으려하였다. 예수를 잡고자하는 원인이 바로 예수께서 그들을 겨냥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해석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접속표지 ‘~(으)므로’이다.

#### 3.2.3.2. ~아/여서

(10)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다] 14:72

立时鸡叫了第二遍。彼得想起耶稣对他所说的话：鸡叫两遍以先，你要三次不认我。思想起来，就哭了。

(10)‘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옆드려서 울었다.

(11)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4:7-8

有落在荆棘里的，荆棘长起来，把他挤住了，就不结实；又有落在好土里的，就发生长大，结实有三十倍的，有六十倍的，有一百倍的；

(11)‘또 더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 **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더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가 되었다.”

‘~아/여서’는 연결어미로서 선행절을 후행절에 종속적으로 연결한다. (10)‘의 텍스트를 의미적 측면에서 보면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러한 이유로 ‘옆드려 울었다.’ 옆드려 울었던 원인이 바로 예수 말씀이 생각나서 입을 ‘~아서’라는 접속표지를 통해 알 수 있다. (11)‘의 경우도 가시덤불에 자라는 기운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지만 옥토에 떨어진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의미를 ‘~여서’라는 접속표지를 통해 알 수 있다.

#### 3.2.3.3. ~때문에

(12) [부자 젊은이] 10:21-22

稣看著他，就爱他，对他说：你还缺少一件：去变卖你所有的，分给穷人，就必有财宝在天上；你还要来跟从。他听见这话，脸上就变了色，忧心愁愁的走了，因为他的产业很多。

(12)‘예수께서 그를 눈여겨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

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때문에’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이유로 해서 혹은 까닭으로 라는 의미가지고 있다. (12) ‘의 텍스트를 보면 부자 젊은이가 그의 재산을 다 팔고 따르라는 예수의 말씀을 들은 까닭으로 울상을 짓고 떠났다는 뜻 이다. ‘때문에’라는 접속표지를 통해 문장에서 예수의 말씀이 부자 젊은이를 떠나게 하는 강한 이유가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3.2.3.4. 그래서

(13) [오천 명을 먹이시다] 6:30-31

使徒聚集到耶稣那里，将一切所作的事、所传的道全告诉他。他就说：你们来，同我暗暗的到旷野地方去歇一歇。这是因为来往的人多，他们连吃饭也没有工夫。他们就坐船，暗暗的往旷野地方去。

(13)‘거기에는 오고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통사적으로 ‘그래서’는 앞 문장의 내용이 뒤 문장의 내용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어이다. 의미적으로 볼 때 (13)‘의 텍스트에서 밖에 나갔던 제자들은 예수께로 돌아와 자기들이 한 일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매우 피곤하고 배도 고했을 것이다. 제자들이 피곤한 상황을 예수께서 아셨다는 전제아래 그러한 이유로 조용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라는 접속표지가 사용되어 원인의 의미가 살아나고 있다.

#### 3.2.3.5. 그리하여

(14)[눈먼 바디매오가 고침을 받다] 10:49-52

耶稣就站住，说：叫过他来。他们就叫那瞎子，对他说：放心，起来！他叫你啦。瞎子就丢下衣服，跳起来，走到耶稣那里。

(14)‘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부르며 말하기를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하였다. 그는 자기의 걸음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그리하여’ 역시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어이다. (14)‘ 텍스트에서 예수께서는 ‘눈먼 사람을 불러오라’ 하셨고 이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눈먼 사람을 부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하여’라는 접속표지를 사용해 이유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3.2.4. 추측

추측으로 번역된 접속표지의 종류는 ‘~(으)르까 하여’가 있다.

#### 3.2.4.1. ~(으)르까 하여

(15)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다] 11:13

远远的看见一棵无花果树，树上有叶子，就往那里去，或者在树上可以找著甚麽。到了树下，竟找不著甚麽，不有叶子，因为不是收无花果的时候。

(15)‘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15)‘에서 ‘있을까 하여’는’ 통사적으로 ~(으)르까 하다가 ‘~(으)르까 하여’ 등의 연결어미와 동사가 결합한 형태로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낸다. 의미상으로 보면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열매가 있을지 모른다고 추측한 장면에서 就의 번역이 접속표지 ‘~(으)르까 하여’를 사용하여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3.2.5. 결과

결과로 번역된 접속표지의 종류는 ‘~(으)니’와 ‘~더니’가 있다.

#### 3.2.5.1. ~(으)니

(16)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다] 2:2

过了些日子，耶稣又进了迦百农。人听见他在房子里，就有许多人聚集，甚至连门前都没有空地。

(16)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접속표지 ‘~(으)니’는 선행절이 후행절의 상황을 설정하는 구실을 하는 연결어미이다. 의미적으로 보면 (16) ‘의 텍스트에서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져서 그 결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뜻이 된다. ‘~(으)니’라는 접속표지를 통해 결과의 의미가 더욱 드러나고 있다.

#### 3.2.5.2. ~더니

(17) [벧새다의 눈먼 사람을 고치시다] 8:25

隨後又按手在他眼睛上，他定睛一看，就寔了原，样样都看得清楚了。

(17) ‘그 때에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런 다음에, 그가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접속표지 ‘~더니’는 후행절이 선행절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의미를 가진 연결어미이다. 의미적으로 예수께서 벧새다 지역의 눈먼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봐서’ 그 결과로 눈먼 사람의 ‘시력이 회복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뜻인데, ‘~더니’라는 접속표지를 사용해 결과의 의미를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

### 3.2.6. 가정

가정으로 번역된 접속표지의 종류는 ‘~(으)면’, ‘그리하면’이 있다.

#### 3.2.6.1. ~(으)면

(18) [비유로 가르치시다] 4:34

若不用比喻，就不对他们讲；没有人的时候，就把一切的道讲给门徒听。

(18)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통사적으로 ‘~(으)면’은 선행절이 후행절에 대해 가정적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다. 후행절에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가정적 조건이 나오는 데 (18) ‘의 경우 예수께서 비유를 언제나 비유를 사용하셔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다시 말해 ‘(으)면’이란 접속표지로 예수께서 비유만을 말씀하셨다는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 3.2.6.2. 그리하면

(19) [무화과나무가 마르다] 11:24

所以我告诉你们，凡你们祷告祈求的，无论是甚麽，只要信是得著的，就必得著。

(19)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접속표지 ‘그리하면’은 뒤 문장의 첫머리에 놓여서 앞 문장과 연결하는 접속어로서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전제나 가정임을 나타낸다. (19) ‘의 텍스트에서 ‘믿는다’는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가 성립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란 결과가 나타날 것임을 ‘그리하면’이란 접속표지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 3.3. 전환관계

전환관계 접속표지로 번역된 경우는 '그런데' 이다.

### 3.3.1. 그런데

(20)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다] 9:2

过了六天, 耶稣带着彼得、雅各、约翰暗暗的上了高山, 就在他们面前变了形像,

(20)'그리고 옛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런데'는 앞 문장이 뒤 문장의 발화에 대한 배경이 됨을 나타내는 접속어이다. (20)'의 텍스트에서 예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다. 높은 산에 가신 것이 의미의 도입과 배경이 되는 부분이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였다. 이러한 두 개의 의미를 연결하는 접속표지로 '그런데'를 사용하여 의미적 관계를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출현한 就가 한국어로 번역되었을 때 어떠한 접속표지의 종류가 사용되었는지 알아보았다. 이 때 접속표지를 계산할 때 중복되는 종류는 모두 제외하고 하나의 범주 안에 넣었다. 예를 들어 나열의 접속표지인 '~고'의 예는 수 십 개가 넘지만 모두 '~고'라는 하나의 종류로 분류하였다. 번역의 양상은 <도표 1>과 같다.

<도표1> 마가복음에서 就의 한국어 접속표지 번역 양상

		就의 접속관계								
		시간관계 접속표지		논리관계 접속표지						
종류	서열 시간	전후 시간	순접						역접	전환
			나열	부가	인과	추측	결과	가정		
			-	뒤에, 다음에, 그러고는	~고, ~고서, ~(으)며, ~(으)면서, 그러면서	그리고	~(으)므로, ~어/아/어서, ~때문에, 그래서, 그리하여,	~(으) 르까 하여		
종류 개수	0	3	5	1	5	1	2	2	0	1
비중 (%)	15		80						0	5

마가복음에서 나온 就가 한국어로 번역될 때 사용된 접속표지의 종류는 총 20개이다. 번역의 양상을 정리하면 크게 시간관계(15%)보다 논리관계의 접속표지(85%)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논리관계 안에 순접에 속하는 접속표지 중에서 나열과 인과를 나타내는 접속표지 종류가 각각 5개가 나왔고, 가정과 결과의 접속표지는 각각 2개, 부가와 추측의 접속표지 종류도 각각 1개를 찾을 수 있었다. 전환에 속하는 접속표지는 '그런데'로 하나였고, 역접의 접속표지의 예는 찾을 수 없었다. 시간관계의 경우 시간의 서열은 없는 반면, 시간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표지 종류를 3개 찾을 수 있었다. 한마디로 마가복음에서 나온 就는 다양한 한국어 접속표지로 번역되었는데 주로 나열과 인과의 접속표지로 많이 번역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이와 같이 중국어는 절과 절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형의 연결 표지들이 각종 요인들로 인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반면 한국어는 둘 이상의 절들이 하나의 문장을 구성할 때 연결어미나 접속어를 사용한다.<sup>12)</sup> 就는 부사이지만 중국어 성경에서 한국어로 번역되었을 때 다양한 접속표지로 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 4. 결론

본 문은 중국어 성경의 원문과 한국어 번역본을 통하여 중국어 원문에서 접속구조를 형성하는 접속표지로서의 就의 한국어 번역 양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마가복음에서 사용된 就는 여러 가지 접속표지를 나타내는 한국어로 번역되었으며, 연결어미와 접속어를 많이 쓰고 있는 한국어의 특성상 주로 명시적인 접속표지가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어가 의미 중심의 언어이다 보니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많아 한국어로 번역할 때 내용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접속사를 사용한 것 같다. 본 문에서 비명시적인 번역은 고찰의 대상에서 제외하긴 하였지만 就는 대부분 명시적인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물론 비명시적인 번역이라 해서 텍스트가 전하고자 하는 정보나 명제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소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접속표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의미 전달이 잘되는 중국어와 달리 한국어는 다양한 연결어미나 접속어를 첨가하는 언어이므로 접속표지를 많이 사용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就는 한국어 텍스트에서 다양한 접속표지 중에서 주로 나열과 인과의 접속관계로 번역되었다.

---

12) 김아영(2004), <한-중 통번역에서의 중국어 무표지 연결절의 관계의미 연구>,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6권1호

## Translation of 就 in the Bible translation

This paper studies how 就, a conjunctive marker, which forms cohesion in the Chinese source text was translated into Korean by comparing the Chinese Bible as a source text and its Korean translation. The result of the study demonstrates that 就 used in the Gospel of Mark was translated into a variety of Korean conjunctive markers. In particular, explicit conjunctive markers were found in many case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language which heavily relies on conjunctive endings and conjunctions. Unlike Korean, Chinese is an ideographic language which does not use much of conjunction, therefore, translating Chinese into Korean tends to add conjunctions for clearer meaning. Of course, there were some non-explicit cases where 就 was not translated but such cases were limited. However, non-translation does not mean that the information that a text intends to convey or the content of a proposition was altered or lost. In Korean text, 就 was translated as temporal, additive, adversative and continuative conjunctions, most of which were additive.

Keyword: Bible, text, cohesion, conjunctive marker, explicit, non-explicit

### 참고 문헌

- 김아영(2004), <한-중 통번역에서의 중국어 무표지 연결 절의 관계의미 연구>,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6권 1호
- 나은미(2006), <텍스트의 내용과 접속표지의 상관관계 연구>, 『우리어문연구』 27집
- 안인경(2002), <텍스트의 관점에서 본 독한 동시통역에서의 관계문 문제>, 『텍스트언어학』 12집
- 원영희(2000), <한글성경 번역상의 변화연구>, 『한국번역학회』 1권 2호
- 이은희(1993), <접속관계의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연동숙(2005), <한국어와 중국어의 텍스트 대조 결속 연구>, 한국외대박사논문
- 정정호(2007), <개화기 개신교의 번역사역과 한국 어문의 근대화>, 『한국번역학회』 8권 2호
- 최태영(1988), <성경번역이 어문생활에 미치는 영향>, 『종교연구』 4권 1호
- Beaugrande & Dressler(1981)/김태옥 이현호 역(1991), 『담화텍스트 언어학 입문』, 양영각
- Brinker(1992)/이성만 역(2004),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역락
- 廖秋仲(1986), 『廖秋仲文集』, 北京语言文学院出版社,
- 표준어번역성경
- 합화본중국어성경
- <http://www.korean.go.kr>